

KISA-중국 안전업무 협정체결



안전협회(회장 이홍지)는 중국정부의 최고안전기관인 중국국가무역위원회 안전과학기술연구중심과 지난 1월 30일 북경에서 “안전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민간차원의 안전보건 기술협력 협정으로 안전협회는 중국과의 교류증가에 대비하여 2000년 4월부터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 교류 등 업무협력을 추진하였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연말 WTO가입과 2008년 올림픽 유치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으며, 2002년 3월에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으로 안전관련 업무량이 확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안전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안전협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 1월 28일부터 2월 7일사이에 중국에 안전업무협력단을 파견하여 기술협력을 추진한 결과 1월 30일 이홍지 회장은 중국내 안전분야 최고 정부기관인 중국국가무역위원회(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안전과학기술연구중심 부주임 吳宗之박사의 배석하에 유철민 주임과 안전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1월28일 이홍지 회장은 천진시 경제위원회 안전관리생산협회 왕서훈 부이사장 겸 비서장과 “안전생산관리 및 재해예방업무 제휴협정”을 체결하였고, 2월 4일부터 6일까지 청도시 안전관리국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안전업무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안전협회는 안전업무의 세계화에 앞장서기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도 4월경에 교류협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체들의 현장 안전업무지원 및 상주국의 안전관계기관과의 업무원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19대 방용석 노동부장관 취임

지난 1월 29일 제19대 노동부 장관에 방용석(方鏞錫)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에 김상남(金相男) 전 노동부차관이 기용 되었다.

방용석(方鏞錫)노동부 장관은 “균형 감각을 갖고 신중히 정책을 펼쳐 노동계와 경영계를 함께 끌어안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 문제는 경영계가 좀더 양보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며, 시급한 노사 문제 현안 세 가지로는 “실업 대책, 주5일 근무제 도입, 노조 파업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은 실업 문제다.”고 말했다.



▲ 방용석 장관

KISA-DuPont 기술협력 확대 조인식

안전협회 이흥지 회장과 듀폰사의 안전사업담당 총괄 제임스 A. 포스맨(James A. Forman) 사장은 2월20일 안전협회 회의실에서 KISA-DuPont간에 안전사업에 관련한 판매, 교육, 컨설팅, 자료배포에 대한 독점 서비스 업무계약을 조인했다.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장 안전한 회사인 미 듀폰사와 안전기술협력을 확대하므로서 국내 우수기업체에 STOP기법의 교육·컨설팅 서비스 및 각종 교육자재를 배포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날 이흥지 회장은 “각종 안전기술의 노하우를 가진 듀폰과 기술협력으로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장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맨 사장은 “듀폰의 안전기술을 국내 사업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조인식 소감을 밝혔다.



안전협회 기관평가 시상



안전협회는 2월25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전국 지회 사무국장이 모인 자리에서 2001년 재해예방부문, 안전교육부문, 건설재해예방부문 등 분야별 실적이 우수한 지회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종합 경영대상은 구미지회가, 금상은 대전충남지회, 은상은 울산지회가 수상하였다. 또한 재해감소 등 목표재해관리부문과 안전교육부문은 창원지회, 기계기구검사부문은 부천시회, 산업안전진단 및 건설안전진단

부문은 광주전남지회가 최우수지회로 선정되었다. 이날 이흥지회장은 지난 한해 어려운 과정에서도 합심노력한 전 지회의 노고를 치하 하고 올 한해 재해예방을 위해 다 함께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성기업 (주)무재해 5배 달성



정효양 대표이사 ▶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대성기업(주)는 쌍용자동차내 협력업체로써 자재 물류공급 및 차량 방청 및 도장작업을 주업무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1996년 4월 15일 이후 정효양 대표이사의 “사람이 곧 경영”이라는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아래 노사가 합심하여 전사적 무재해운동을 실천한 결과 무재해 5배수 목표 1,670일을 달성하고 인증패를 받았으며, 아울러 이제 10배수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협회와 협력하여 교육강화, 불안전행동, 불안전상태 순찰강화로 무재해 운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쌍용, 기아자동차 주문식 맞춤교육 실시

쌍용자동차(주)에서는 2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사내 관리감독자 470명을 대상으로 쌍용자동차(주) 공도연수원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교육을 각 과정별로 3일간 21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아자동차(주)에서는 관리감독자 1,440명을 대상으로 3월12일부터 12월5일까지 총24회에 걸쳐 화성공장 카렌스 교육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실천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각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교재와 강사진을 구성하여 사업장에서 편리한 일정을 수립하여 가까운 장소에서 실시하는 주문형 맞춤교육은 교육비 및 출장비를 절감하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각분야별 교육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CLEAN 사업장에 인증서 수여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과 구로공단내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방용석 노동부장관, 이홍지 안전협회장, 문형남 안전공단이사장 등 내·외귀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LEAN 사업장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방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재해 8만명의 6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CLEAN 3D 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재해예방 모델로 적절하다. 산재예방은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영예의 CLEAN 100호 사업장은 (주)미형정공(대표 오남수)으로 선정되어 인증서가 수여되었다.

